2010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주요활동 결과

1. 전문가 지원 현황

기관명	회의명	지원가 참여(명)	기고서 제출(건)	분야
ITU	PP-10 전권회의	2	0	표준화정책
ITU	아태지역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시험 협의미팅	1	0	BcN
ITU-T	FG Cloud	1	3	
ITU-T	FG-FN	1	0	
ITU-T	NGN-GSI	14	33	
ITU-T	Q9/15 Interim	1	0	
ITU-T	SG5 WP3	4	1	
ITU-T	JCA ICT & CC	1	2	Green ICT
IHO	HY & SC	1	0	IT융합
ISO	TC184/SC2	1	0	
JTC1	94th MPEG	1	1	
JTC1	SC6 Plenary	1	1	RFID/USN
ISO	TC184/SC4	2	0	디지털콘텐츠/SW
ITU-T	FG Cloud, NGN GSI	2	4	
JTC1	94th MPEG	3	6	
OASIS	WSQM TC	1	0	
ITU-T	NGN-GSI	1	0	방송통신융합
JTC1	94th MPEG	4	1	
3GPP2	Super Meeting	1	0	이동통신
CISPR	정기총회	1	0	
IEC	TC106 및TC76	1	2	
IEEE	802 interim Announcement	1	0	
IEEE	802.15 WPAN Meeting	1	0	
JTC1	SC6 Plenary	1	1	
MIDS	14th MIRB	1	1	
ITU-R	SG7, WP7B,7C,7D	1	4	
	합 계	**50**	**60**	

2. 주요내용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쟁점 사항	국내 대응전략	참여 전문가
이동통신	IEEE 802.15 WPAN (09.12~09.17 미국 하와이)	IMT-Advanced	· SG PSC의 TG(task group)으로 승격 여부 검토	· PSC는 우리나라에 의해 발의되었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타 기술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국내 각 기관이 회의 전 사전 조율을 통해 공동 대응	은창수 (충남대학교)
	MIDS 14th MIRB (10.25~10.29 미국 하와이)	해상 항공 통신	· WRC-11의제1.4(항공이동) 관련 Link-16 향후 운용 방향 논의 · Link-16 주파수 주요 현안 협의 및 대역 조정 후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 논의 · 한국군 Link-16 도입 무기체계의 항공이동업무 주파수 대역 조정	· 항공이동용 주파수의 추가 분배 관련 – 우리나라는 현 시점에서 본 대역에 대한 항공이동용 신규 서비스 계획이 없으며, 군에서는 전쟁/평화 시를 위해 기 확보된 대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예상되나, 국토해양부에서 국제적으로 확보된 1164-1215MHz 신규 항공이동 서비스를 시행할 시 군과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 – 군에서 특정 항공기에 도입 예정인 LINK-16 단말기가 운용 시 미국 국방성을 중심으로 Frequency Remapping이 포함된 신규 단말기가 도입될 것이고 1164-1215MHz 대역에서 국내 공역에서 민간서비스와 군 작전간 문제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배정기 (삼성탈레스)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쟁점 사항	국내 대응전략	참여 전문가
표준화 정책	ITU PP-2010 (10.04~10.22 멕시코 과달라하라)		· 국제통신규칙(ITRs) 관련 논의 – ITR 개정작업에 개도국이 주장하는 신규기술 논의를 수용하고, 개도국은 ITR이 전략 및 정책적인 원리 반영 및 국제 조약에 포함될 만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선진국 제안 수용. 그러나 통신시장의 자유화 이후로 국가 간 통신의 과금과 요금 정산사항은 사업자 간의 상업적 협정으로 결정되므로 사실상 사문화 되었음 – 2006년 전권회의 결정으로 이사회에서 ITR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작업반이 설립되었으며, 금번 전권회의에서 동 규정을 다루는 2012년 세계전기통신회의(WCIT) 논의의 범위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 대립 · 헌장 안정화: 매 전권회의마다 개정되는 헌장·협약으로 인하여, ITU 회원국은 동 개정 기본문서를 비준, 수락 및 승인(이하 비준)해야 하는 부담 경감의 필요성 제기 – 비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이며, 비준 미이행 시의 투표권의 상실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연합의 기본적이고 단일한 법률문서와 조약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문서로 이원화	· 한국은 위에서 적시한 주요 쟁점 외에도 2014년 전권위원회의를 유치키로 한만큼 이번 PP-10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전권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Logistic Arrangement Plan 수립 – 전권위원회의에서의 선거(선출직 및 이사회 등 포함)와 관련한 외교적 전략 수립 및 실천계획 도출 – PP-10에서의 주요 이슈별 국가 입장 정리를 위한 사전 연구 추진 – PP-2014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체 유형적·비유형적 비용 효과 분석 추진 및 효율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 등	박기식(ETRI) SG3의장 외 1인
BcN	ITU-T NGN-GSI (09.06~09.16 스위스 제네바)	NGN	· NACF workshop에서 NGN 이동성 지원을 위한 NACF 확장 기능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며, 현재 이동성을 위해 MMCF 추가 및 NACF 확장을 위한 stage II 문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프로토콜 표준화를 stage III 문서 작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3GPP와 같이 IETF 프로토콜을 명시하여 사용하거나,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의견과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표준화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프랑스의 의견 제안	· NACF workshop을 통해 Mobile IPTV 외 현재 증요하게 부각되는 N-screen, M2M 과 같은 서비스를 위한 NACF 기능이 고려되었으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측면에서의 표준화를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계획 –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IPR 확보 및 Q.7 권고안으로 추진 계획	강유화(ETRI) SG11 WG3 Q.7 Q.nacf. mob2 에디터 외 11명
디지털 콘텐츠/ SW	JTC1 94th MPEG (10.10~10.15 중국 광저우)	멀티 미디어 응용	· MPEG Video Subgroup - 3D Video Coding (3DVC) –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3차원 비디오 부호화(3DVC) 표준화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선행 실험을 통해 실험 영상을 점검하고, 실험 영상의 깊이맵 생성과 중간 영상 생성 결과를 양안식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평가	· 3DVC에서 논의되고 있는 깊이영상 생성 및 깊이영상을 이용한 가상시점 영상생성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2011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MPEG 3DV 표준에 작업에 제안할 새로운 기술의 준비 시급	호요성 (광주과학기술원) 외 2명
Green ICT	ITU-T WP3/5 및 JCA (09.27~10.01 이탈리아 로마)	Green ICT	· 그린 데이터센터의 진단방법, 구축 및 운용방법에 관한 표준화 작업 착수 – ICT 제품 공용어댑터 표준화 제안(중국) – 그린 데이터센터 작업은 주요국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지역 표준인 CENELEC 및 EC CoC의 Best Practice와 같이 논의되기를 원함 – ICT 제품 공용어댑터 표준화는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회의에서 반대는 없었으며, 차기회의(2010년 11월)에서 각국의 현황에 대한 기고가 있을 전망임	· 그린 데이터센터 작업은 TTA에서 추진 중인 국내 표준화기술을 포함하여 ITU표준화에 대응할 계획임 – ICT 공용어댑터 표준: 국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 대응 – 그린 데이터센터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진단표준 필요 – ICT 공용어댑터표준: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및 관련 업체의 현황 파악 등 의견수렴 필요	정삼영 (전파연구소)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쟁점 사항	국내 대응전략	참여 전문가
RFID/ USN	JTC1 SC6 Plenary (09.26~10.02 영국 런던)	미래 네트워크	· ISO SC6 WG7 은 미래네트워크 표준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problem statement 및 quirement를 네트워크 주요 기능별로 정리하고 있음 · 현재 overall aspects 에 대한 draf가 정리되어 PDTR 투표 승인 요청 · 이번 회의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7개 부분으로 나누어 editor 지정 Overall aspects, naming & addressing, switching & routing, mobility, security, media distribution, service composition임	· SC6 WG7 의 ToR을 검토할 SG를 만들고 ETRI 강신각 박사가 의장 수임 · 미래네트워크의 확장된 분야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국내 기고 요청 계획 · 미래네트워크의 구조에 기반이 될 요구사항 문서의 작성 주도권을 갖게 되어 향후 미래네트워크 설계 및 표준특허 선점 기대	주성순(ETRI)
IT 융합	JTC1 94th MPEG (10.10~10.15 중국 광저우)	디스 크립션 기술	· 제스쳐 인식과 같은 인텔리전트 센서 디스크립션 기술 논의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저 디스크립션 기술 논의 · 실감효과 및 커맨드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한 이진부호화 표현 기술	· 본 94차 회의의 MPEG-V ad-hoc group의 주 기고들이 한국 대표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재 FDIS로 진행된 표준화 결과물들을 2011년 1월 95차 MPEG미팅 Awareness event를 통해 홍보하기로 함 · 메타버스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접목을 위한 유저 디스크립션 기술방식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고 facebook, twitter 서비스들과의 접목 시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됨 · 오디오(음성, 음향 포함) 및 비디오(이미지 포함) 신호를 지칭하는 미디어는, 현재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대화형 미디어, 맞춤형 미디어, 몰입형 미디어, 실감형 미디어로 발전되고 있음.	박광로(ETRI)
방송 통신 융합	JTC1 JCT-VC (10.07~10.15 중국 광저우)	HEVC	· 이번 JCT-VC에서 HEVC의 1차 Test Model을 만들어짐(HM) – 삼성전자의 제안방식이 HM의 기본구조가로 결정되었음 – 제안된 많은 기술들이 복잡도가 높고, 성능향상이 작은 기고서들은 채택되지 않았음	· 1차 HM상에서 실험을 수행해야 하며, 제안할 방법의 복잡도가 낮고 성능향상을 가져오는 방법들이 앞으로 채택 가능성이 높음 · HEVC는 H.264/AVC보다 압축률이 약 2배정도 되는 표준이 될 것이므로 표준화가 완성되는 시점인 2013년 1월(FDIS)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제품에 HEVC codec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	이영렬 (세종대학교) 외 3인

TTA